

북녘에서 바라 본 운무에 휩싸인 백두산 천지.

# “ 차이 넘고 이념 넘어 통일로 갑시다! ”

## 이상필 前 학교운영협의회장 interview

“아직까지 전차가 다니는 평양 시내의 모습과 청정 지역인 평양의 깨끗한 공기 그리고 사람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 70, 80년대의 모습이 생각났었지.”

지난해 수재를 당한 북측 학생들을 돕기 위해 급식시설을 지원하고 평양을 방문했던 부산광역시교육청 방북대표단 이상필 전 학교운영협의회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평양의 우리 문화 보존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동강도 굉장히 맑고, 기념박물관도 상당히 잘 보존되어.” 평양을 설명하는 이상필 회장의 말 속에 이미 평양에 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요즘 청소년들은 북측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계기가 적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다. “남측은 서양 문화를 많이 수용 했지만 북측은 오랜 봉쇄 정책으로 자기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 왔다. 그러나 우리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동일한 자본주의 잣대로 남북을 비교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청소년 교

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캠페인이나 남북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캠프, E-MAIL 주고받기 등 남북의 청소년들이 교류를 통해 어울려 놀 수 있는 방법도 덧붙였다.

또한 “몇몇 사람들이 이념으로 남과 북을 서로를 비교 하게 되면 이질감만 느끼게 되고 역효과가 생길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최선”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남북 양쪽 모두의 노력만이 통일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얼마나 ‘북’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까? 지금 남과 북은 사이가 많이 좋지 않은 것 같다. 화합과 단결을 목표로 하는 지구촌 축제인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도 함께 입장하지 않았다. “긴장관계가 오래 지속된다면 서로의 신뢰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이 회장의 말이 떠오른다.

우리가 먼저 북을 형제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북측을 이해하려 한다면 남북간 신뢰는 조금 더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김윤정 기자 dalgi41@naver.com  
이예주 기자 yejugreat@hanmail.net



▶ 이상필 前 학교운영협의회 회장



▲ 평양의 환송만찬.



▲ 인민대학습당에서 컴퓨터 학습에 전념하고 있는 북측 학생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 인민대학습당은?

평양 한복판의 남산재에 1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된 일종의 도서관. 1982년 4월 1일에 개관했다. 3,000만부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 관련 서적들, 사회과학, 문학작품, 기술공학, 특수기술문헌을 비롯해 북측에서 발행된 각종 출판물과 기술문헌 및 외국의 과학기술도서, 정기간행물 등이 보관돼 있다. 하루 수용능력

은 12,000명 선으로 이용자들은 자기의 전공분야에 따라 강의를 듣고 열람도 할 수 있는 체계다. 열람실에는 5,000여개의 좌석, 800석 규모의 강의실 및 시청각강의실 등이 마련돼 있고, 아랫층과 인근에 빵집과 식당, 백화점이 있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7세 이상의 공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참조 : 밀리터리뉴스>

##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앞장선 북녘 수해 학생돕기

1년 전 여름, 북측에는 40년만의 대 홍수가 찾아왔다. 대동강이 넘치고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1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상황은 어려웠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측은 도움이 절실했다.

그해 8월 이 소식을 접한 부산지역 수만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은 2억 3,391만원을 모금해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에 전달했고, 부산시교육청은 5톤 트럭 10대 분량의 학교 급식기구와 시멘트 등을 평양에 지원했다.

김분숙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부산시민의 동포애가 담긴 수해 복구 지원물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 차원을 뛰어넘어 진정한 동포애를 실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북측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 수해복구 지원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데는 2005년부터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를 비롯한 각계가 함께 김일성종합대학 내에 매월 80만 캡슐의 항생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

원했던 교류 경험이 큰 힘을 발휘했다.

이렇듯 대북지원 사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가 평화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1여년 전 갑작스러운 수해로 북측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따뜻한 동포애 지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다. 오늘날 다소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인류애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부터 다시 접근해본다면 동북아 평화증진의 첫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정유진 기자 juliao\_o@hanmail.net